불교유치원 무료교육
실직가정 어린이대상

실직가정 어린이를 위한 무료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유치원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무료불교유치원

이름	전화번호
구룡사유치원	(02)577-1986
반야유치원	(02)208-7802
반달유치원	(032)323-0577
보명유치원	(032)816-2508
지산유치원	(0333)64-2261
아름유치원	(0342)704-6206
룸비니유치원	(0344)913-0141
무궁화유치원	(0343)82-8160
꿈마을유치원	(0343)22-4083
선재어린이집	(02)561-3421
장미어린이집	(02)3474-6333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사무소등 관련구청과의 협의하에 무료교육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이밖에 장안유치원(0342-702-5072)은 올해부터 실직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비의 반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전체 정원이 195명인 장안유치원은 신청자에 한해 20여명 선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화유치원(02-453-5149)은 1·2월 교육비 미납분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제주 청교련 예술제
22~24일 임원연수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김수진)는 15일 제주관광민속 박물관에서 제8회 룸비니 예술제를 개최했다.

1천5백여명의 청소년불자가 참석한 이날 예술제는 1부 법회에 이어 2부에는 연극 사자탈춤 중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룸비니 예술제는 제주지역 청소년 포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자회 등 경제살리기 나선다

불교계 여성단체 신년사업계획

여 불 련 고승비구니 행적 발굴 조명
불교부인회 무연고 영가 천도재등 추진
여성불교회 자매결연 재소자 물품 후원

역사 속에 숨어있는 고승 비구니의 행적 발굴을 통해 비구니 위상 정립 사업을 벌이는등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신년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불련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이하 여불련)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98년 사업계획과 5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여불련은 여성교양강좌, 전통예술견학, 생활한복발표회, 성지순례, 보육원 양로원 방문, 청소년장학금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도덕성회복을 위한 종교세미나 개최, 고승비구니 행적 조사 발굴, 제5차 아시아 연대회의 일본대회 참석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고승 비구니의 행적 발굴 조사는 현재 11명 정도 진행됐다. 20명 이상 발굴되면 책으로 간행한다. 특히 생활한복발표회와 종교세미나는 서울시로부터 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한불교부인회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매주 금요일 서울대병원 자원봉사와 월례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양로원에 기거하다 숨진 연고없는 노인들을 위한 영가 천도재를 상반기 중에 봉행할 예정이다.

전국여법사회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이사장 성순경)는 영등포구치소·청송교도소 등의 포교·교화사업을 비롯해 경전역경, 전통예술 의식전승 사업, 고아원·양로원·소년소녀가장 지원, 포교사·전법사·법사 자격고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불교회 종교인평화회의에 불교계 여성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여성불교회(회장 변광순)는 서울구치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해오던 물품 지원과 법회 동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하는 세미나 '통일시대를 맞는 종교여성의 역할'에도 참석하고 환경운동도 동참한다.

경불련 여성위 경불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자)는 매주 월·목·토요일에 한국사회봉사회의 장애아동 돌보기 외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불교계 유치원에 비디오 상영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청정국토여성분과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남은수)는 5월경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바꿔쓰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바자회를 기획 중이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한 방편으로 예식장의 남는 음식을 수거해 탑골공원 노인들의 간식으로 제공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환경지킴이와 공동으로 사찰환경 탐사를 기획해 사찰 주변 정화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97년도 여불련 세미나 현장.

'아나바다' 운동 실천
구룡사 알뜰시장 개설

구룡사(주지 정우스님)는 재활용의 생활화를 꾀하고 이웃간의 정도 나누는 물물교환·알뜰시장을 3월1일 구룡사 합동회의실에서 개설한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알뜰시장은 매주 주말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구룡사는 평소 쓰지않는 물건이나 의류 등 알뜰시장에 내놓을 물품을 매주중에 기증받는다. (02)575-7766

건강 365일 〈14〉 하늘타리뿌리

당뇨·해소·염증성 질환에 특효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약명으로는 천화분(天花粉) 또는 과루근(瓜蔞根)이라고 한다. 약성은 소갈병(당뇨병)을 치료하며 위장의 어열을 없애주고, 염증을 다스리는 성분이 있어 해소 기관지염 유방염 중이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널리 응용된다.

하늘타리뿌리에 얽힌 중국 전설을 하나 소개한다. 동굴이 많은 양자강 하류 남쪽에 사는 나무꾼이야기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가는 길에 목이 말라 동굴 앞에 흐르는 물을 마셨다. 물을 마신 뒤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린 나무꾼은 잠결에 두 노인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올해 이 동굴 안에는 두 개의 금으로 된 박이 자라났지." "쉿! 큰소리 내지 말게. 옆에 나무꾼이 자고 있지 않은가? 우리 얘기를 듣고 금호박을 훔쳐가면 어쩌려구!" "알면 어쩌겠나? 동굴에 들어갈 수 없는 걸. 7월7일 정오에 '하늘문 열어라 하늘문 열어라' 하고 큰소리를 쳐야 열린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금호박이라는 말에 너무 좋아하다가 바위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꿈을 꾼 것이다.

마침내 7월7일이 되어 나무꾼은 단숨에 동굴 앞에 당도해 정오가 되기를 기다려 '하늘문 열어라 하늘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쳤다. 과연 문이 열린 동굴 안에는 두 개의 누런 금호박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집에 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금으로 된 박이 아니고 보통박이었다. 나무꾼은 실망을 하고 말았다. 다음날도 나무꾼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두 노인이 또 꿈에 나타났다. "임자는 입이 너무 싸. 금호박을 도둑맞지 않았나." "걱정말게. 약효과를 모르니까. 폐병, 해소 천식에 좋고 소갈병에 특효일세."

이 전설 속의 박씨를 과루인이라 하는데 해소 천식 폐병에 좋다. 박의 뿌리는 천화분으로 당뇨병과 각종 염증에 두루 쓰인다. 특히 관절염에 특효약이다. 위장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에는 몸안의 피라든지 정액이 마르면서 자궁염증 무릎관절염 허리관절염 고관절염 당뇨병 등이 생기는데 이때 복용하면 좋다.

복용법 1회 8g을 달여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만화 백유경(百喩經) 이향원

어리석은 범부들도 무지하기가 이와 같아 "나"가 없는 다섯가지 쌓임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니 순금의 그림자를 본 사람이 애써 그것을 찾으나 헛수고만 있고 소득이 없음과 같다

'만화 백유경' 연재 이번호로 마칩니다.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97년 합본집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

5,200여 한국 사찰의 역사 집대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韓國寺刹寶鑑

佛名辭典

우리 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8년에 걸친 편찬작업
《한국사찰보감》은 한국사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사찰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5,200여 사찰의 어제와 오늘을 집대성했다. 편자 이동술 선생(前국민대 고전실 근무)의 18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발굴 정리 작업, 까다로운 편찬작업을 거쳐 완간된 《한국사찰보감》은 한말(1910년)까지 국내에 건립 또는 유적을 가진 사찰 5,200여 곳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했다.

▶일목요연하게 편집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5,200여 한국사찰의 사찰명, 사찰위치, 연혁, 설화, 부속암자, 유형문화재, 유적 및 천연기념물, 탑비·부도류, 모든 참고문헌류를 수록했다.

▶불교사상과 고승 연구의 길잡이
《한국사찰보감》에 수록된 연혁이나 소장 문화재류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흥미롭고 교훈적인 설화류나 기록 통해서는 불교사상과 고승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동술 편/신국판 양장/540면/값 35,000원

고성훈 지음/일지 해설/신국판 양장본/320쪽/값 20,000원

▶국내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거사 불명 700개, 보살 불명720개)의 불명에 대한 해설 수록

▶불자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꼭 필요한 책
故 고성훈 스님이 생전에 세인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기획한 후 7년에 걸친 작업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간행.

▶불명 짓는 법 수록
생년월일에 맞추어 불자들 스스로 자신의 불명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불명 짓는 법을 수록하였다. 신도들도 그 의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계의식 순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02)313-5047, 5056
팩스:(02)393-9696